

“진도홍주 민족혼·풍류 담아 국민酒로”

진도홍주를 세계화하려면 국가 인 테권도를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애국심이 강한 술’이라는 이미지와 무형문화재의 집산지인 진도의 소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풍류를 아는 사람들의 술’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마케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26일 서울 브리스톨호텔에서 열린 ‘2009 진도 홍주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진도군은 정부 신활력사업 시행으로 명품화에 성공한 진도홍주 ‘루비콘’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도 홍주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문화창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식품공학의 거장인 정동호 중앙대 명예교수, 정호권 건국대 전총장, 조재선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장, 노완섭 동국대

郡, 서울서 식품 전문가 참여 ‘경쟁력 강화’ 세미나



‘진도홍주’의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황태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위원은 진도의 역사 속에 숨고 있는 삼별초 배종순 장군, 명량대첩 이순

신 장군이 승전 후 마신 술은 진도 홍주였을 것으로 가정하면서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의 술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진도아리랑·씻김굿

등 무형문화재의 집산지인 진도의 소리와 홍주를 묶어 ‘풍류를 아는 사람들의 술’이라는 스토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문위원은 특히 진도홍주를 맛과 향·색을 고루 갖춘 고려시대 이후 전통적인 솔로, 유일하게 진도 군에서 만 전승 제조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술’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특성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도홍주 문화마케팅 전략을 발표한 서일대학 혁건식 교수는 “한국의 본고장 진도의 강인함과 무술을 접두한 무술문화 이벤트를 제시하면서 무술을 진도홍주의 국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남상창 진도부군수는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를 진도홍주 마케팅 전략에 추가 반영해 진도홍주 국내 소비촉진은 물론 해외수출에 박차를 다하겠다”며 “오는 7일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제1회 진도홍주의 날’ 기념행사를 축제로 성공시켜 진도홍주를 국민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통 민속주인 진도홍주는 맛과 향·색을 고루 갖춘 고려시대 이후 전통적인 솔로, 유일하게 진도 군에서 만 전승 제조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희망 근로 ‘양파 수확 돋기 프로젝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신안군 자은면 주민들이 최근 자은면 대율리 등지에서 마늘과 양파수확작업을 돋고 있다. 신안군은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돋기에 나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진도 인재육성장학금’ 18억원 조성

100억원 목표...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투입

진도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뜻 있는 인사들의 성금이 쏟아지고 있다.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따르면 최근 국청 대회에서 6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기탁 받았다. 농협진도군지부(지부장 김세종)가 지난해에 이어 장학기금 500만원을, 재안산진도향우회(회장 김승학)에서 100만원을 기탁했다.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는 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18억 7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열망하는 지역민들의 뜻으로 모아진 교육발전기금은 명문 우수고, 윤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고등학생 13명, 대학생 11명 등 총 24명 입

학성적 우수 장학생을 선발, 1천7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오는 9월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는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장학회에 기탁한 경우 진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회에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다”며 “기탁자는 연말소득 정산 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무안 ‘황토고구마 과자’ 나온다

郡-제과업체 업무 협약...가공식품 개발 나서

무안의 지역특산품인 황토고구마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된다.

무안군은 최근 현경면 용정리 무안황토고구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제과업체인 주왕산제과와 고구마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생산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주왕산제과와 고구마클러스터 사업단은 황토고구마의 가공식품 신제품 개발과 낙농처 공동 개척에 나선다. 또 제과 주원료 조달과 고구마 유통 마케팅을 함께 추진하고 고구마 가공식품 체험장 조성 등 협력하기로 했다.

고구마클러스터 사업단은 그동안

목포 ‘사랑의 섬’ 외달도 번영회

산책로 넓히고 민박시설 개선

목포 ‘사랑의 섬’ 외달도 번영회 주민을 협의체(회장 김한용)를 비롯한 주민들이 앞장서서 관광객 맞이 준비에 열정을 쏟고 있다.

외달도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옛 매봉산 해변산책로(한국민박→해수풀장까지) 약 1.5km 구간을 폭 3m로 넓혔다. 또 주민협의체 회원 민박업소에 대해 사워실과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어촌민박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안 황토고구마 클러스터 사업단은 작년부터 3년 동안 총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 고구마의 생산과 유통·소비시스템 구축과 마케팅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 북항 ‘해양관광지’ 변신

착공 25년만에 개발사업 완공 앞둬



신안 분재공원 단체관람 ‘인기짱’

관람객 3만명 돌파...타시·군 벤치마킹

개장 45일째를 맞은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민선 4기 역점사업을 통해 지난 4월 29일 암해도에 문을 연 분재공원은 이달 15일까지 관람객 3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개장 초기만 해도 개인단위의 관람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차츰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기 까지 단체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져 타 시군의 벤치마킹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전북 익산농협 조합원 1천100여명, 울산농협 300여명에 이어 컵스카우트 대원 1천800여명, 광주 송덕고등학교 520명 등이 잇따라 방문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신안군 관계자는 “분재공원 인근 2㏊의 부지에 수석전시관을 건립, 송공산 지역을 사색과 명상 체험학습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신안 ‘친환경·전문 농업인 양성’ 첫 발

슬로시티농업대 개강

신안군은 친환경농업 및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올해 첫 개설된 ‘2009 슬로시티농업대학’이 지난달 26일 개강식을 갖고 학사일정에 돌입했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입학생 54명과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슬로시티농업대학은 오는 12월까

지 ‘친환경농업과정’, ‘생태문화과정’의 2개 과정으로 나눠 전문교수의 지도 아래 친환경농업과 생태문화의 경영 마인드, 전문지식의 이론 및 실습, 현장경학 등 교육과정을 지도하게 된다. 특히 입학생은 학사일정과 수업 참석 등을 점수제로 만들고, 졸업과 제물을 제출토록 해 교육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고구마의 산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협약체결은 계기로 관련분야 연구개발업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신제품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상품화를 통해 무안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소비를 촉진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황토고구마 클러스터 사업단은 작년부터 3년 동안 총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 고구마의 생산과 유통·소비시스템 구축과 마케팅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모실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더

특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번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래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법무부동 투자부

• 토지800평 건물1,350평(폐지75평)

보증금 1억/월3,000만원 월지2,12억

• 토지500평 건물1,500평(폐지55평)

보증금 1억/월3,000만원(폐지55평)

• 토지500평 건물750평(폐지 100평)

보증금 4억/월2,000만원 월지12억

▶토지

(상무대구 중남부지역)

(화사동 및 법원, 학원부지 등)

• 834㎡(25평)-폐지 20평, 300만원

(풀럼네스 국제화재/제프스 중남부지역)

• 833㎡(22평)-폐지 10평(폐지 10평)

(파란제호호주 주당 유흥밀소매점)

• 611㎡(18평)-폐지 60평(폐지 10평)

(상무대구 중남부지역)

▶기타부동

(농가73,000㎡(2만2천평)

정당 100평(동산동) 경기부처로 좋은곳

▶호수/모래

상무대구 계획35개 직영(폐지28평)

(2층) 3층 300평(폐지 45평)

▶현금 45평 투자부동

▶월세 15평 투자부동